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들의 군무' 장관

참으로 빼어난 것일수록 평범해 보이고, 꼭 찬 사람일수록 낮아보인다고 했던가? 앞서기 다 내려놓은 나무들 사이로, 달빛 너럭하 내려앉은 소백산의 지태가 딱 그랬다.

겉코 낮지 않은 높이(1439.6m)임에도 저술로 우뚝함을 자랑하지 않고, 당당한 체구를 지니고서도 주위를 압도하지 않는 산. 소백산은 그런 산이다. 그래서 '소백'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군지처럼 자신의 이름에 '작을 소(小)' 자를 앞세운 것인지도 모른다.

최고봉에 '비로'라는 이름을 단 산은 더러 있다. 익히 아는 산인 치악산과 금강산도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은 '비로'다. 그런데 1만 2천 봉우리로 널리 알려진 금강산과 원만한 형태의 몇 개 봉우리로 이루어진 소백산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데, 이는 일체의 존재를 '진리의 몸'으로 파악하는 비로자나 즉 법신불(法身佛)의 세계에서는 이(理, 본체)와 사(事, 현상)가 궁극적으로 하나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수백년간 바람과 한을 이룬 탓에 특이한 모양이 된 주목들.

백두대간 속으로 <24>

소백산(죽령→고치)

죽령엔 향가 인물 죽지랑 탄생 설화 비로봉~상월봉 억새길 천국 거닐듯

죽령(689m)에 선다. 달들이 전의 어스름이 빛과 사물의 경계를 흐드는 시간이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경계에 선 죽령은, 문헌 기록상으로 포암산 아래의 하늘재 즉 계림령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고갯길이다. 삼국사기 제2권 신라본기 제2를 보면 '아달라이사금 5년(158) 봄 3월에 죽령 길을 열었다'고 적혀 있다. 하늘재는 그보다 2년 앞서 열린 고개다.

삼국유사에도 이 고개에 얽힌 얘기가 전하는데, '모죽지랑'이라는 향가로 우리들의 귀에 익은 '죽지랑'의 탄생 설화가 그것이다. 신라 진덕여왕 때의 사람인 송골공이 삭주도독사가 되어 임지로 가던 중 죽령에 이르니 한 거사가 고갯길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 받은 바 있는데, 한달 후 그 거사는 죽어 송골공의 집에 환생했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죽지(竹旨)'라 했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다.

또 이 고개에는, 어느 도승이 고개가 하도 가팔라 대지광이를 짚고 오르다 마루에 이르러 지광이를 놓은 것이 살아났다는 전설이 전하지만, 지금은 그런 운치와는 거리가 먼 유행가 자락만이 요란한 시끌한 고개가 된 지 오래다.

죽령의 불빛이 아슬해질 무렵, 달이, 그것도 꼭 한 달이 동식 솟는다. 문득, 서거정이 올었다는 시구 하나가 떠오른다. <중국어지승담>에 전하는 한 구절을 옮겨본다.

"소백산이 태백산에 이어서, 서리서리 백 리나 구름 속에 꽃혀 있네." 그러나 지금은 달 좋은 밤, 서거정의 구름은 흔적도 없고, 달빛만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 예민 양 예민한 시멘트 포장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산 좋은데 물까지 좋은 곳 드물고, 더하여 인심까지 좋은 곳 더욱 귀하다.는 말도, 기실은 사람들의 끝간 데 모를 욕심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달빛이 별빛이 녹아버렸다는 사실은 진한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제2연화봉(1357.3m)을 지나 천문대의 불빛이 보이자 그런 생각은 더욱 간절하다. 1973년에 세워져 우리 나라 최초로 직경 61cm의 반사망원경이 설치된 소백산천문대, 그 옆에서라면 맨눈으로도 멋진 별바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천장이 부실한(?) 잠자리에

누워 바라본 하늘은 장관이다. 바람 따라 흐르는 여린 이내 사이로 연뜻연뜻 비치는 별빛은 강줄 위에 내린 별인 듯 또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아침, 태양의 기운이 서리를 거두어간 뒤, 제2연화봉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이곳부터는 해발 고도가 1300m를 웃돌기 때문에 산마루에는 거의 연새 뿐이고, 기슭에 무리치기 철쭉들도 지난 봄 붉게 타올랐던 화려한 추억만을 앙상한 몸매 속에 저미고 있다.

천문대를 지나 제2연화봉을 비껴 비로봉 가는 길은 '자연탐방로'라는 행정용어투의 멋없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동산객들의 발길에 지친 산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구름다리처럼 만들어 놓아서 제법 운치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의 중간쯤에,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 군락지가 있다. 또한 그 군락지 사이에는 천상의 이슬만을 거둔 듯한 생물이 있으므로 목마른 등산객들에게 그야말로 '감로의 땅'이다. (사족 하나 보태자면, 아무리 갈증이 심하더라도 천문대 앞 자갈가의 음료수는 드시지 마시기를. 그래야



달빛에 잠긴 소백산의 밤. 국망봉에서 비로봉 쪽을 바라본 모습이다.



비로봉 오름길. 법신불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이다.

랑을 맞아보면, 왜 이 봉우리의 이름이 법신불의 이름을 딴 '비로'인지를 단박에 느낄 수 있다. 어디 하나 모난 데 없는 원만한 형상에 사방이 특 터진 활달자재한 경계는,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감싸는 비로자나부처님의 세계 그 자체인 것이다.

비로봉을 지나 국망봉 너머 상월봉까지의 부드러운 산마루 길은 장쾌하기로 치면 한국 산 중 으뜸이자 소백산의 백미다. 바람에 물 맞기며 억새와 함께 너울거리자니 천상의 길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다.

노을지는 국망봉을 뒤로 하고 달 떠오르는 상월봉을 오른다. 첫눈을 받는 느낌만큼이나 상쾌한 낙엽 사르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아침, 소백이 아껴둔 비경인 산월봉 앞대를 천천히 살피며 서서히 몸을 낮추니, 이른 바 양백지간의 고갯마루인 '고치'다. 소백산과 헤어져 선달산을 지나 태백으로 들어서는 길목이다.

역시 착별은 고갯마루에서가 재쾌하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순재식(사진작가)

불자기업 해탈불상조성원 02-435-2626 / 017-799-7730

해탈불상 조성원초부터 불사현양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천왕 : 천왕문이 없어도 범당내에나, 출입문, 벽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 호신불로 스님방에 모실 수 있으며 천안에다 시주자 이름을 표를 달아드립니다. 불사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지국천왕



광목천왕



중장천왕



다문천왕



소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삼존불도 조성하여 드립니다.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보급

달마대사와 경전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함께 모셨습니다. 가정에는 품위있는 소장용" 고마운 분께는 마음의 선물을!"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을 선택하십시오.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불림문자로 반야심경을 설파하였습니다. 흔히 달마조사의 그림 자체가 기(氣)가 많이 살아 있으며, 수맥차단 운기보호 등등을 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반야심경과 함께 있는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선(禪)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氣)를 주고 있습니다.』

재질 및 특징

달마도사는 우리에게 불림문자로 반야심경을 설파하였습니다. 흔히 달마조사의 그림 자체가 기(氣)가 많이 살아 있으며, 수맥차단 운기보호 등등을 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반야심경과 함께 있는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선(禪)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氣)를 주고 있습니다.



▶ 스탠드형 경판

- 원산지 : 한국
- 규격 : 가로 49cm 세로 23cm, 두께 28cm 무게 1.8kg
- 가격 : 97,000원



▶ 액자형 경판

- 원산지 : 한국
- 규격 : 가로 69cm 세로 43cm, 두께 3cm 무게 4.5kg(액자포함)
- 가격 : 107,000원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